산업통상자원부

보도자료
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'17년 4월 2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27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4. 27 (목)	담당부서	철강화학과, 미주통상과
담당과장	김종철 과장(044-203-4280) 박찬기 과장(044-203-5650)	담 당 자	이우진 사무관(044-203-4286) 최성준 서기관(044-203-5651)

정부와 업계 공동으로 철강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긴밀히 대응하기로

- 산업부 장관, 철강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-

□ **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4.27(목) 철강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**최근 철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**에 대해 논의했다.

주 장관은 국제적 **공급과잉**으로 세계 철강 산업이 **구조적 어려움**에 처해있으며 세계 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**수출 비중이 높아** 수입규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

작년 주요 개국 **정상회의**에서도 최근의 철강 무역 문제가 국제적 공급과잉이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

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 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모두 순수출국인 상황에서 최근의 수입규제 문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**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**라고 평가했다

정부는 그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**민 관 수입규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** **고위급 양자협의채널** 등을 통해 상대국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여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**적극적으로 대응했다**

이에 최근 **인도**에서는 후판 열연 냉연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한 참조가격 수준을 적용했고

베트남의 도금강판 반덤핑 판정시 예비판정 대비 낮은 수준의 마진율이 부과되고 **멕시코**의 냉연강판 쿼터를 증량하는 성과도 있었다

한편 정부는 미국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도 **미국과 고위급 양자면담** 계기 등을 통해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지속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 **후판 반덤핑 상계관세 최종판정**에서는 **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**이 부과된 바 있다

아울러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민 관 수입규제 특별팀 차관급 을 확대해 **통상 전문 변호사 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** 등을 포함하고 최근 **미국의 무역확장법 조에 따른 조사** 등에 대한 **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**하는 한편

고위급 및 실무급 **양자협의채널**과 세계무역기구 **반덤핑위원회** 등 **다자채널**을 활용하여 **법리적인 공론화**를 통해 **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**하는 한편 **사안별로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**할 계획이다

이와 함께 **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** **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** 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 **제소를 배제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**으로 **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응**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

주 장관은 **업계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**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업계 내 **통상대응 역량 확충** 불합리한 판정 결과에 대한 **현지 구제절차 활용** 주요 수출국과의 **적극적인 아웃리치**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

한편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**철강협회**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

또한 **선제적 사업재편** 노력과 함께 고급강재 경량소재 등 **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** 및 **수출 시장의 다변화를**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

이에 업계는 국제적 **공급과잉**에 따른 현재의 **구조적인 문제점에 공감**하면서 **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환영**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

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하면서 **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**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이우진 사무관(044-203-4286), 미주통상과 최성준 서기관(044-203-56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